

#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 關한 考察

— 1924年~1941年代를 中心으로 —

尹 升 鉉\*

## 目 次

- I. 序 論
  - II. 日帝下 大學圖書館의 歷史的 形成背景
  - III. 日帝下의 大學設立과 그 圖書館의 性格
  - IV. 日帝下의 大學圖書館 實態分析
  - V. 結 論
- 参考文献

### 1. 序 論

大學社會에서 圖書館이 教育支援施設 가운데서 中樞的인 機關 이라고 하는 것은 否定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같은 大學圖書館의 歷史는 設置母體인 大學의 創設에 따라 始作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大學圖書館의 嚆矢를 살펴보면 1475年 李朝 成宗 때 最高教育機關인 成均館(國立大學格임)에 設置한 「尊經閣」을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가진 最初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尊經閣」以後 近代的인 意味에서의 大學圖書館으로서는 1926年 日帝가 우리나라에 세운 京城帝國大學 附設圖書館을 出發로 하여 祖國光復以後 數 많은 大學이 設立됨에 따라 大學圖書館도 그 數에 있어서 刮目할만한 增加를 하여왔다.

이렇게 「尊經閣」이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基礎를 이룬 以來로 비록 機能面이나 性格 그리고 時代的으로는 差異가 있을지라도 大學圖書館이라는 目的에 있어서는 脈絡을 같이 하고있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오늘날의 大學圖書館이 形成되기까지의 過程을 歷史的으로 考察함으로써 우리 나라 大學圖書館史를 定立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同時에 韓國의 大學圖書館 發展을 위한 方向設定의

\* 서울大學校圖書館

基礎資料를 抽出하며 나아가서 韓國圖書館史의 定立에 寄與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 II. 日帝下 大學圖書館의 歷史的 形成背景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形成過程을 歷史的으로 考察하면 日帝治下 以前에는 이의 設置母體인 高等教育機關이 高句麗時代에 「太學」(372)에 設置되었고, 統一新羅時代에는 「國學」(682) 高麗時代에는 「國子監」(992) 그리고 李朝時代에는 「成均館」(1398)의 體制로 變遷되어 왔다.

이러한 高等教育機關인 「太學」「國學」「國子監」等에는 教育에 必要한 書籍이 備置되었을 것으로 生覺되나 文獻上에 書籍專担機關에 關한 記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確實히 알 수 없다. 그러나 李朝時代의 最高教育機關인 成均館에는 「尊經閣」이라는 書籍保管 專担機關을 設置하고 「司藝」「學正」에게 命을 내리어 經史諸子百家雜書의 數萬卷의 書籍出納을 맡게 하였다.<sup>1)</sup>

이것이 곧 李朝時代에 있어서 唯一의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擔當한 機關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李朝時代의 「尊經閣」은 當時의 唯一한 大學圖書館의 役割을 擔當하여 오다가 設置母體인 成均館이 日帝에 強點된 뒤로는 그들에 의하여 經學院으로<sup>2)</sup> 改稱되면서 孔子의 祭亭 및 一部儒生의 漢字 教授機關으로 그 制度의 痕跡만 維持하였다. 其後 1930年 明倫學院을 設立하였고 7年 後인 1937年 4月에 明倫專門學院으로 改編되었다가 1942年 4月에는 新制度에 依한 明倫專門學校로 一回卒業生을 輩出했으나 日帝末期에 이르러는 法文系 教育機關의 整備로 同專門學校는 廢校되고 明倫鍊成所로 改編을 보게 됐다.

1945年 8月 15日 祖國光復과 함께 明倫專門學校는 다시 開校되었고

---

1) 徐巨正撰, 四佳文集, 木板本, (肅宗31)卷 I, 丁28b 成均館導經閣記.

2) 經學院規程(明治44年 6月 15日 總督府令 第73號)

「經學院」이란 日政에 依하여 改稱되기 以前에도 學政과 祀典을 分立하여 成均館은 祀典을 專担코 「經學院」은 教育을 專担토록 高宗 24年(1887)때 이루어진바 있다.

i) 承政院日記, 影印本(서울 國史縮線委員會, 1968)

高宗24年 7月20日(冊高宗10), 68上

이를 基礎로 1953年 2月에 成均館大學校로 昇格되어<sup>3)</sup> 現在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教育活動은 韓日合併前까지는 先進國의 近代的 教育制度採択이 試圖되었으나 여러가지의 國內情勢에 依하여 그 成果는 不振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當時의 近代的 教育活動에 있어서 基督教 宣教師나 民間人에 依한 教育活動이 活潑하여 政府에 依한 것 보다는 이들의 活動이 더 活潑히 展開되었다는 點이다. 卽 이들이 그 當時에 세운 教育機關은 「培材學堂」을 비롯하여 「敬信學校」「梨花學堂」「貞信學校」等으로서 主로 基督教 宣教師에 依해서 세워진 學校였다. 그리고 民間人들에 依해서 세워진 學校로는 「元山學校」設立을 嚆矢로 하여 「興化學校」「乙未義塾」等 많은 私立學校 設立이 곧 教育救國이라는 樣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後日 一部는 專門學校의 母體가 된 것이 있으며 解放과 함께 現在의 大學校로 發展된 私立學校도 數個校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近代化를 위한 教育活動은 繼續된 西歐文物의 導入으로 拍車를 加했으나 日帝의 強壓에 依한 併合으로 말미암아 自主的인 近代化를 위한 教育活動의 길이 막히게 되고 말았다. 이러한 結果로 近代的 教育의 實施는 名分에 不過하게 되었다.

그 後 日帝는 1919年의 3·1運動을 契機로 統治方針을 武斷政治에서 所謂 文化政治로 轉換시켜 韓日融化라는 政治的 目的을 위해 文化的 開發에 힘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日帝는 文化開發의 重點을 教育에 두었는데 이때까지의 우리 나라의 教育은 1907年에 制定公布된 「朝鮮教育令」에 準해 實施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制定當時 韓日의 實情에 符合시켰기 때문에 現實의 教育面에서는 日本과는 學校數는 勿論, 教育內容에 있어서도 많은 格差가 있었다.<sup>4)</sup>

3) 梁大淵, 成均館創立考, 成均館大學校論文集 IV (1959) pp27.

4) 京城帝國大學 同窓編 創立 50週年 記念誌 (東誌, 1934) pp3

i) 韓國 普通學校 (日本의 小學校에 該當) 4年 高等普通學校 (日本의 中學校에 該當) 4年  
ii) 日本 小學校 6年 中學校 5年

1911年 併合 以後 日帝에 依해 朝鮮教育令이 公布되었는데<sup>5)</sup> 이것 또한 旧態依然한 것으로 高等教育을 보면 단지 以前の 官·公立學校를 認可해서 專門學校를 두는 程度로 根本的인 改革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教育令改正만으로는 繼續 向上되어 온 우리 나라 國民의 向學心과 現實에 對한 不滿을 抑制할 길이 없어서 己未 3·1運動을 契機로 日帝는 教育令을 크게 改正하여 1922년에 改正教育令에 따라 비로소 本格的인 高等教育이 始作되었다.

이어서 專門學校는 「專門學校令」에 依하여 專門學校의 設立이 可能해지고 大學教育 및 그 予備教育은 「大學令」에 依하여 實施되었다. 同令中 文部大臣의 職務는 朝鮮總督이 이를 代行토록 하여 京城帝國大學을 設立하기에 이르렀다.

以後 1945年 8月 15日 祖國光復이란 歷史的轉換期를 契機로 하여 이 땅에는 數 많은 大學이 設立됨에 따라 大學圖書館도 그 數에 있어서 刮目할만한 增加를 하였다.

### Ⅲ. 日帝下의 大學設立과 그 圖書의 性格

前述한 네 次例의 教育令改正中 1922年 改正教育令에 依해서 우리 나라에도 大學教育이 認定되니 우리 힘으로 大學을 設立하려는 움직임이 活潑하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도 當時의 國內여건이 如意치 못하여 이의 實現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事情때문에 우리나라에 大學의 設立이 永遠히 挫折된 것은 아니었다.

當時 國內外에서의 與論때문에<sup>6)</sup> 日帝는 우리나라에 大學을 設置키로 하고 1924年 京城帝國大學官制를<sup>7)</sup>公布함과 同時에 本學子科를 開設하였으니 이로서 이 땅에 近代教育을 위한 最初의 最高학부로서 京

5) 朝鮮教育令(明治44年 8月 勅令 第229號)

6) 朝鮮·滿洲等の 大學設置에 對한 建白書.

同建白書는 東京帝國大學 教授 白島庫者, 服部宇之吉, 上田萬年, 建部遜吾等の 連名으로 朝鮮(京城) 滿洲(張順 또는 大連)에 大學을 設置토록 總理大臣 文部大臣 朝鮮總督 그리고 關東都督府長官에 提出한 建議書이다.

7) 京城帝國大學一覽(京城 京城帝國大學 1927) pp20

i) 京城帝國大學官制(大正 13年 5月 勅令 第103號)

城帝國大學이 設置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日帝의 純粹하고 自發的인 大學 設立은 아니었고 다만 當時 民族運動의 方法論的 側面에서 教育抗爭의 一環이었던 民立 大學 設立運動, 世界的인 情勢等, 여러 要素들이 結合되어 우리 나라에 大學을 設立토록 한 動機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朝鮮, 滿洲等地에 大學 設立을 建記한 白鳥庫吉 등의 建白書에 서야 밝힌 바와 같이 결코 우리 韓民族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根本的 意圖는 그들의 植民地에 처한 文化研究와 이를 통한 植民地政策의 合理化를 꾀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日帝下에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性格을 究明하기 위해서는 當時 우리 나라에 唯一한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의 性格을 理解하는 作業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圖書館의 性格은 設置母體인 大學의 設立目的이나 理念과 直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日帝가 이 땅에 近代教育을 위한 最初의 最高學校로서 設置한 京城帝國大學의 面貌를 考察하므로써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의 性格을 쉽게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日帝는 1924年 이 땅에 京城帝國大學을 設立하고 同大學에 「法文學部」와 「醫學部」를 둘 것을 公布하였다.<sup>9)</sup>

이는 그 組織 內容이 日本에 設置된 帝國大學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sup>10)</sup>

「그들은 日本文化를 천명하는데 極히 重要한 位置에 있을뿐 아니라 世界的 研究에 焦點이 된 東洋文化研究上 무엇보다 緊要함을 이 大學의 使命과 特色으로 한다」고<sup>11)</sup> 하고 있다.

#### 8) 前揭 建白書

「植民地에 있어서 文化研究는 植民地 사람들로 하여금 文化的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 9) 京城帝國大學, 前揭一覽 pp1

京城帝國大學 學部ノ件(大正13年 5月勅令 第104號)

#### 10) 平井三男 京城帝國大學의 規模組織과 그 特色, 朝鮮(朝鮮文) CII(1926, 4) pp35

#### 11) 平井三男 上揭書 pp36~37

平井三男을 本大學의 特色과 使命을 法文學部에서는 朝鮮의 法律制度, 經濟, 美術 歷史等에 關한 研究를 함을 重要한 使務로 할 生覺이며 또한 醫學部에서는 朝鮮特殊의 疫病 藥物의 研究를 遂行케 하고자 한다」

한편 京城帝國大學 設立의 目的을 大學令을 中心으로 考察하면 「大學은 國家에 須要되는 學術의 理論 및 應用을 教授하고 아울러 그 濫奧를 攻究함을 目的으로 삼고 兼하여 人格의 陶冶와 國家思想에 留意하여야 한다」라고<sup>12)</sup> 規定되어 있으니 그 궁극적 目的은 日本 帝國主義 精神을 國家思想이라는 말로 比喻하여 韓日人 學生들에게 注入 시키려는데 있었다. 이 大學令은 植民地末期에 와서는 「특히 皇國의 길에 立脚하여 國家思想의 涵養 및 人格의 陶冶에 留意함으로서 國家의 柱石이 될만한 忠良有爲의 皇國臣民을 養成하는데 힘쓴다」라고<sup>13)</sup> 바뀌었다

이런 點으로 보아 韓國人 學生들을 그들에게 有用한 皇國臣民化 하려는 것이 本大學 設立의 根本 目的이었음을 쉽게 看破할 수 있다.

한편 教育政策의 側面에서 살펴본다면 이 大學의 性格이 植民地 教育機關이었음은 〈別表 1〉에서 確實히 알 수가 있다. 即 每年 韓國人 學生의 入學을 表面으로는 實力競爭을 假裝하여 日本人 學生의 切半 또는 3分の1 밖에 許容하지 않았다.

---

12) 京城帝國大學 前掲一覽 1925, pp5

大學令 第1條(大學 7年 12月 社會 第388號)

13) 孫仁銖 韓國近代教育史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75) pp190.

이러한 現象은 理工学部에서도 同一하여 韓國人學生에게 高等技術과 知識을 부여하지 않으려 한 點에서 日帝의 植民地政策의 한 断面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傾向은 國內에 設立된 數個의 技術系 官立專門學校의 境遇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는 日本人을 위한 植民地内の 大學이었을 뿐이다.

또한 이 大學의 日本人 教授들도 植民地政策의 合理化를 劃策 하는 作業을 돕는 御用學者에 不過하였고 여기에 附設된 圖書館 亦是 그들의 教育理念 및 政策具顯을 돕는 附屬機關으로 設置되어 있을 것임은 當然하다.

이 圖書館은 1926年 2月20日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 規程」이<sup>14)</sup> 制定됨으로 同年 5月에 本部 仮建物內에 開設되었다.

그리고 同圖書館의 藏書의 構成은 大體로 史料 및 法學關係書籍을 비롯한 社會科學系 圖書과 法文學을 비롯한 人文科學系의 圖書가 그 中樞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特記할 것은 1907年 奎章閣의 廢止로 宮內府室 圖書課에 併合되어 收藏되어 있던 圖書 및 諸記錄中에서 韓日合併後 朝鮮總督府 取調局에 移管된 圖書 및 諸記錄을 1928~1930年間 3次에 걸쳐 移管 받음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唯一하게 奎章閣圖書를 所藏하게 된 것이다.<sup>15)</sup>

이로 因하여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의 性格은 韓半島에 있어서 中樞的인 資料提供의 役割을 擔當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奎章閣 王室圖書를 비롯하여 國學, 人文, 社會科學 分野에 걸친 圖書의 收藏으로 우리 나라 唯一의 大學圖書館을 標榜하게 되었다.

當時 우리 나라 私立專門學校 圖書館에 關한 概觀은 先行研究에서 記述된 바 있다.<sup>16)</sup>

---

14) 京城帝國大學 前掲一覽 1928pp100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規程(昭和3年2月20日 制定)

15) 서울大學校 20年史編纂委員會 서울大學校20年史(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6) pp35.

16) i) 尹升鉉 日帝下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 關한 研究(成均館 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3) pp17~20

ii) 金容成 日帝下 私立專門學校圖書館에 關한 研究(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1)

따라서 本文에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 IV. 日帝下の 大学図書館 実態分析

前章에서 日帝下 우리 나라의 唯一한 大学図書館이었던 京城帝國大学 附属図書館의 性格은 그들의 教育理念 및 政策具顯을 呑는 附属機關이라 規定지었다.

이와같은 性格의 同図書館의 実態를 첫째 組織 및 職員 둘째 予算, 셋째 藏書構成 넷째 資料選定 및 購入 다섯째 閱覽奉仕順으로 記述하기로 한다.

첫째 大学図書館 組織을 大学図書館 自体가 中극적 目的이 아니고 그 設置 母体인 大学教育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教育支援施設의 中樞의 인 機關이라고 認定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機關으로서 能率의 이고도 效果의 으로 任務를 遂行할 수 있게 組織되어야 한다.

그러면 當時의 京城帝國大学 附属図書館의 組織은 어떠하였는가 살펴보기로 하겠다. 同図書館 設置의 法的根據는 「京城帝國大学官制」<sup>17)</sup>에 依據한다.

이에 依하면 「京城帝國大学에 附属図書館을 둔다」라고만 規定하였고 機構나 組織에 關하여 規定된 바가 없다. 따라서 當時의 이 図書館組織을 明確히 밝힐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때의 圖書原簿 및 圖書館座談會 記事等を 參照하여 考察컨대 대체로 圖書館長 아래에 司書官을 두고 그 아래에 「庶務」「受入」「目錄」「函架」「書庫」「貸出」等 6個의 小部署로 編成되어 있다. (別表2 參照)

이 圖書館組織은 館長 아래 中間管理層이 없이 다만 總務, 整理, 閱覽等の 圖書業務를 機能別로 編成한 特徵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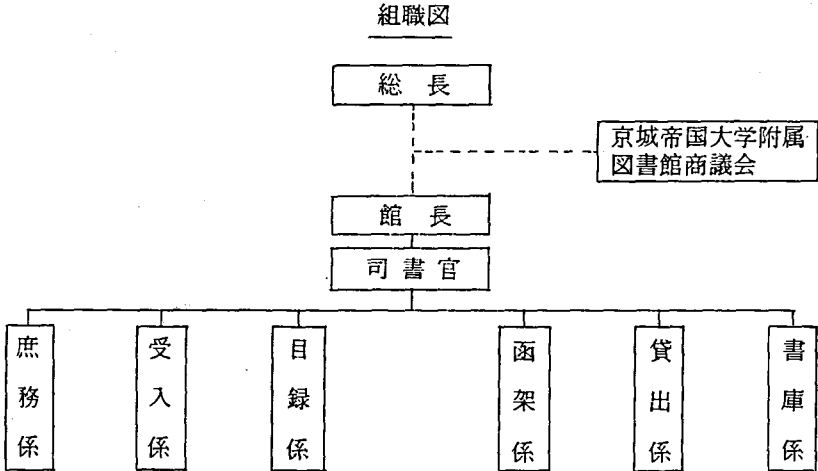
圖書館의 機能을 円滑히 遂行하기 위해서는 一定한 組織의 基本原理에 의해서 構成되어야 한다. 이 原理란 專門化의 原理, 命令一元化의 原理, 調整의 原理 그리고 監督의 幅에 對한 原理를 들 수 있는데 이는 一般企業의 經營組織原理와 다른 바 없다. 따라서 圖書館機能의 問題는 組織의 問題로서 組織이 記述한 原理에 依해 잘 짜여져 있으면, 그 圖書館의 機能도 能率의 으로 遂行되는 것이요 組織이 잘 못 짜여져

17) 京城帝國大学 前掲一覽 1927. pp23



있으면 그의 機能도 마비될 우려가 큰 것이다.

(別表 2) 京城帝国大学 附属図書館



- 1) 京城帝国大学学友会報, 「図書館座談会記事」1933, p.164
- 2) 京城帝国大学附属図書館図書原簿
- 3) 京城帝国大学附属図書館商議會規程 参照

그러므로 當時의 同大学図書館組織은 첫째 機構 및 組織의 法的 뒷받침이 不足하였고 한편 責任과 權限의 原理에 依한 責任과 業務限界가 明確치 못하였다고 하겠다. 卽 現 서울대학교 図書館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설치령」에<sup>18)</sup> 施設의 設置, 機構組織, 業務分掌, 그리고 定員(職員數)을 明文化하고 있는데 反하여 京成帝國大学官制에는 施設의

18) 서울대학교설치령(1975년 2월 28일 대통령 제7,765호)

、이는 「国立서울대학교設置令」(1946년 8월 22일 美軍政法令 第102號)를 筆頭로하여 圖書館關係條項은 3次에 걸쳐서 改正되었다.

1) 大統令 第2171號(1965. 7. 9)

2) 서울대학교 規則改正(1966. 12. 18)

3)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령(1975. 2. 28) 「제 6, 10, 17, 23조」

設置는<sup>19)</sup> 明示하고 있으나 業務分掌에는 「附屬圖書館에 있어서의 司書官은 上官의 命을 받아 圖書記錄 및 閱覽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라<sup>20)</sup> 하고 그 다음 司書는 上官의 命을 받아 圖書記錄의 整理, 保存 및 閱覽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라고<sup>21)</sup> 職務만 表現하였을 뿐 具體的인 業務分掌이 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監督의 幅에 對한 原理와 差異가 있다. 卽, 機構에 關한 規定이 없다. 이것을 館長 한 사람이 圖書館 全職員을 指揮監督하게 된다는 點에서 이를 指摘할 수 있다.

셋째 同大學官制에 司書官과 司書들의 業務만을 推象的으로 規定하였기 때문에 各係의 業務分掌根柢가 없어 專門化의 原理와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點으로 미루어 當時의 圖書館組織은 前近代的인 組織으로서 館長으로부터 權限이 아래로 分割되며 委讓되는 階層組織이다. 그리고 이때의 圖書館業務가 오늘날의 近代大學圖書館과 같이 職能的으로 分化되지 못하였고 最少의 人員에 依하여 構成되어 機能面에서는 近代大學圖書館이 指向하고 있는 本然의 機能을 發揮하기에는 無理가 있었을 것임은 自明한 事實이다.

따라서 當時의 機能은 資料保存을 中心으로 한 圖書貸出 程度의 初步的인 大學圖書館活動을 위한 組織에 不過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大學圖書館의 機能은 大學教育에 있어서의 學習과 調查 研究活動이 活潑히 이루어지도록 奉仕함이 主要機能이다.

따라서 大學圖書館은 單純히 圖書閱資料의 保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效果的인 利用을 誘導하고 積指的인 學術的資料를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여야 하는 것이다. 卽,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教育活動을 도와 주는 奉仕機關임과 同時에 研究活動을 促進하기 위한 資料供給처로서 調查研究機關으로 活用됨이 바람직 하다.

그러므로 大學圖書館을 組織함에 있어서는 整理部門도 重要하겠지만 積極的이고 活動的인 參考奉仕를 展開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重要

---

19) 前揭官制 第13條

20) 上揭官別 第7條

21) 上揭官別 第10條

한 要件이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當時의 同圖書館의 組織은 오늘날의 近代大學圖書館組織과 比較하여 본다면 總務, 整理, 取書部署의 組織規模에 있어서는 비록 뒤 떨어진다. 하겠으나 機能面에 있어서는 별달리 差異가 없었을 것이라 生覺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大學圖書館奉仕業務가 單純히 利用者가 要請한 資料의 提供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利用者의 要求에 따라서 보다 專門的인 奉仕 卽, 參考奉仕가 重要視되며 活潑히 展開되고있는 點에서 볼 때 이 組織으로서의 바람직한 參考奉仕는 勿論, 學術情報活動이 合理的이며 能率的인 面에서 效果的으로 遂行되지 못하였을 것임은 分明한 事實이다.

그러므로 全體的인 機能面에서 볼 때 오늘날의 大學圖書館의 機能에는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라 生覺된다.

한편 人的構成인 職員은 圖書館 三要素의 하나이다.

이 職員中에는 專門職司書 以外에 非專門職인 一般職員이 있는데 圖書館機能의 円滑한 遂行을 위하여 全體職員中 專門職과 非專門職의 比率이 適切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에 對하여 美國圖書館協會(A.L.A)에서 밝힌 바를 參考로 하면 大學圖書館의 境遇 非專門職은 全體職員의 最小限 40%에서 最大限 60%로 잡고 있다.<sup>22)</sup>

한편 맥널(Archei L. Mcneal)은 專門職 1名에 非專門職 2名の 比率로 構成되어야 한다고 했다.<sup>23)</sup>

이를 基準으로 하여 同圖書館의 職員構成에 있어서 全體職員은 專門職과 非專門職으로 区分하여 比較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資料가 없기 때문에 本 論文에서는 圖書館 全體職員에 對하여 言及할 수는 없으나 다만 그 때의 專門職이라 볼 수 있었던 司書官과 司書에 對하여서만 考察하여 보기로 하겠다.

---

22) A.L.A, Board on Personal Administration classification and Pay Plans for Libraries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vol. III. 2nd ed (Chicago, ALA, 1947) pp24

23) Archie L. Mcneal, "Financial Problems of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xv(1954, 10) pp407

오늘날 大學圖書館 活動의 發展과 現實化에 따라 職員 卽 司書의 資質向上을 크게 要求하며 司書의 基本的인 資質要件으로서는 一般的인 敎養과 管理能力 그리고 語學能力 및 어떤 主題에 對한 知識을 들고 있다.

그러면 當時 同圖書館 司書의 資格을 살펴보자 이들은 特別任用令에 依해 任用되었다. 卽 京城帝國大學司書官은 다음의 資格을 가진者로부터 高等試驗委員의 銓衡을 거쳐 이를 任用할 수 있다.

가) 敎育 또는 圖書館에 關한 高等文官職에 있었던 者

나) 3年以上 敎育 또는 圖書館에 關한 奏任官待遇의 職에 있었던 者.

다) 5年以上 敎育 또는 圖書館에 關한 判任官 또는 判任官待遇의 職에 있어 判任官 5級俸以上の 俸給 또는 85圓以上の 月俸을 받았던 者.

라) 圖書館에 關한 特別한 學芸技術이 있는 者<sup>24)</sup> 라고 司書官의 資格基準을 規定했고 이어서 司書에 對하여는 圖書館에 關하여 學術 經驗이 있는 者로부터 普通銓衡을 거쳐 이를 任用할 수 있다<sup>25)</sup> 라고 各各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을 살펴보면 그 때의 이들의 資格을 다만 圖書館과 敎育에 關한 一定한 基準을 가진 사람이 이 資格에 符合되는 銓衡過程을 通하여 認定을 받고 있으니 우리 나라 現行 圖書館法에 明示된 「資格과 区分」에서 밝히고 있는 司書職과는 本質的인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當時에 이러한 規定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大學圖書館의 專門職司書의 資質로서는 學問과 文獻에 對한 깊은 理解와 知識이 要求되며 또한 廣範圍한 文獻을 充分히 活用할 수 있는 能力이 누구 보다도 앞서 있어야 한다는 點을 考慮하였기 때문이라고 生覺된다.

그렇다고 하여 前述한 特別任用令의 施行만으로 오늘날과 같은 大學의 正規圖書館學科를 卒業하였거나 他學科를 卒業한 學士로서 碩士課程을 履修한 專門職司書와 資質面에 있어서 同一視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에는 크게 差異가 있었을 것이다.

24) 京城帝國大學 前揭 司書官 및 司書特別任用令 第2條

25) 上揭 特別任用令 第3條

26)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 제4191호 1968. 11. 3) 제19호(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

이를 뒷받침하는 事實로서 田中敬의 主張을 들 수 있다. 그는 「現行 法制上, 으로는 形式的資格을 具備되었다고 하겠으나 實質上의 資格은 없다. 「教育 또는 ……」이라는 用語만으로 敎員 또는 教育事務에 經驗이 있는 사람이면 司書로서 門外漢이라도 相關없다고 하면…」<sup>27)</sup>라고 指摘하면서 司書의 資格檢認定試驗制를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同圖書館의 專門職이라 할 수 있었던 司書官 및 司書의 配置狀況은 解放前까지 5名<sup>28)</sup>으로 台灣·日本의 帝國大學 附屬圖書館과 比較하여 보면 別表3과 같다.

이 表에 依하면 司書官에 있어서는 各大學이 同一하게 1名씩 配置 하였으나 (1935年以後에는 東京帝國大學에는 1名이 增加配置 되었다) 司書에 있어서는 學校의 實情에 따라 差等を 두어 配置하였다. 司書가 가장 많았던 곳은 東京帝國大學에 平均 15名이었으며 적은 곳은 平均 4名인 京城帝國大學 이었다.

이는 오늘날의 圖書館法施行令에 司書職 또는 司書敎師의 配置基準에<sup>29)</sup> 明示된 바와 같은 法的措置에 依한 것이라고는 生覺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當時의 司書職 配置에 對한 明文規定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特記할 事實은 이 때의 圖書館長이 敎授專任館長이었다<sup>30)</sup>는 점은 오늘날의 우리 나라 大學圖書館의 館長을 敎授兼任館長이라는 點과는 對照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同圖書館의 予算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圖書館은 生産機關은 아니면서도 持續的이며 有用한 資料의 蓄積 및 擴充 有能한 職員의 確保 施設의 擴張을 絶對要件으로 하기 때문에 圖書館에서 차지하는 予算의 比重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1959년에 制定된 美國의 4年制 大學圖書館의 基準을 보면 圖書館 予算을 大學 總予算의 最低 5%로 잡고 內容에 있어서는 人件費를 圖

27) 田中敬 “圖書館員의 資格に就て” 圖書館雜誌, LXXⅢ(1925. 11) pp10

28) 京成帝國大學 前掲一覽, 1927, pp, 28, 1930, pp129, 1935, pp181~182.

29) 前掲施行令 第6條3項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

30) 岩猿敏生 日本圖書館學講座, VI; 大學圖書館(東京 雄山出版株式會社 1976) pp15

〈別表-3〉

司書職 吳 在学生対比表

区分 年度	京城帝国大学			台北帝国大学			東京帝国大学			九州帝国大学		
	学生数	司書職 当学生数	司書1人 当学生数	学生数	司書職 当学生数	司書1人 当学生数	学生数	司書職 当学生数	司書1人 当学生数	学生数	司書職 当学生数	司書1人 当学生数
1927	315	3	105	61	4	15	7,682	14	549	1,504	4	376
1930	573	5	115	182	6	30	8,064	14	576	1,956	6	326
1935	675	5	135	114	6	19	8,130	17	478	1,952	6	325
平均	521	4	130	119	5	24	7,959	15	530	1,804	5	361

資料1) 京城帝国大学一覽 1927, p. 28 1930 p129 1935 p181-2 参照

2) 台北 " " p. 129 " p127-8 " p125-6 "

3) 東京 " " p. 22 " p65 " p21 "

4) 九州 " " p. 20-31 " p33 " p35-6 "

※ 台北帝国大学의 1927년은 1928년도 対比임 (1928년開校함)

書費의 2 배로 잡고 있다”

그러나 同図書館의 予算規模에 對하여는 疎明資料의 不足으로 正確히 알 수는 없으나 이때의 日本国内 帝國大學 및 同一植民地였던 台灣의 台北帝國大學에 總予算을 基礎로 하여 分析 比較함으로써 그 面貌를 推定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때의 大學別 全體予算을 比較하면 別表4와 같다.

이 表에 依하면 京城帝國大學의 境遇平均學生 1人當 經費가 3,337円 인데 같은 植民地의 台灣帝國大學은 8,757円으로 台灣帝國大學의 予算이 京城帝國大學의 그것보다 約3倍가 높은가 하면 九州帝國大學은 約5割이 적은 1,640円이고 東京帝國大學은 899円으로 京城帝國大學의 約4分1을 上廻할 뿐이다.

그러나 全體予算은 東京帝國大學이 7,193,774円으로 가장 많으나 學生 1人當 平均經費에서는 台灣帝國大學이 8,757円으로 가장 많다. 이러한 事實은 植民地大學을 優待하였다기 보다는 台灣帝國大學이 京城帝國大學보다 2年後인 1928년에 新設된 까닭으로 施設의 充實을 期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在學生數가 적은 때문에 學生 1人當 平均經費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反面에 東京·九州帝國大學은 植民地의 兩大學보다 約50年前에 設立된 既成大學으로서 모든 面에서 이미 充實히 設備되었기 때문에 歷史가 얕은 新生大學에 比해 學生 1人當經費가 덜 支給되어도 別·支障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生覺된다.

別表5는 그 當時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에서 執行된 圖書構入費와 大學全體予算을 對比한 것이다.

이 表에 依하면 京城帝國大學 圖書費의 平均額이 43,350円으로 大學全體予算 2,382,43의 1.8%밖에 되지 않았으니 現 日本 國立大學의 圖書擴充費 基準인 3~4%의” 約2分の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는 近代大學圖書館의 予算基準과의 對比이기는 하나 그래도 顯격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는 點에서 當時의 圖書館予算의 零細性을 立證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大學全體予算과 圖書館予算中 執

---

31) A·C·R·L Committee on standard "standard for college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xx(1959) pp273~280,

32) 日本文部省大學學術局, 國立大學圖書館改善要項及びその解説 1953.

〈別表-4〉 韓國、台灣、日本、帝國大學予算對比表

區分 學校名	創立 年度	1927			1931			1936			平均 值		
		予 算	學生數 人	學生 1人當 經費 円	予 算	學生數 人	學生 1人當 經費 円	予 算	學生數 人	學生 1人當 經費 円	予 算	學生數 人	學生 1人當 經費 円
京城帝國大學	1926	1,147,341	3,315	3,642	1,838,619	534	3,443	1,69,115	542	3,061	1,548,358	464	3,337
台北	1928	1,003,168	61	16,445	3,151,151	192	5,998	1,287,014	139	9,259	1,147,111	131	3,757
九州	1931	3,178,054	1,957	1,624	3,107,476	1,959	1,586	3,340,410	1,952	1,711	3,208,647	1,956	1,640
東京	1977	6,810,127	7,682	887	7,070,680	8,187	864	7,700,514	8,130	947	7,193,774	8,000	889

- 1)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語學校一覽 1935. p. 511~514
- 2) 台灣總督府學務局, 台灣總督府學事年報 v27. p56. 422. v30. p66. 344. v35. p249. 290
- 3) 日本文部省學務局, 日本帝國文部省年報 v55. p59. 165. v59. p81. 191. v63. p73. 180 參照



行된 圖書構入費에 限定된 比較分析이었으므로 實質的인 意味에서의 圖書館予算에 對한 評價가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도 이제 까지의 大學別 全體予算과 圖書館予算의 一部인 圖書構入費의 比較分析만으로서도 다음과 같은 事實을 抽出할 수가 있다.

〈別表 - 5〉 大學總予算 및 執行 圖書購入費 對比表

區分 年度	京城帝國大學 總 予算 額	東城帝國大附屬圖書館 圖書購入執行額	比 率	備 考
	円	円	%	
1930	2,636,491	51,823	1.96	
1935	1,871,247	47,761	2.55	
1940	2,639,568	30,467	1.15	
合 計	7,147,306	130,051		
平 均	2,382,435	43,350	1.81	

資料 1)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諸學校一覽 1942. p. 220~226

2)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圖書原簿 1930, 1935, 1940. 參照

첫째 京城帝國大學이 日本國內의 帝國大學에 比하여 予算面에서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 卽 京城帝國大學의 全體予算의 平均値가 1,548,350円으로 日本國內의 1個島嶼地方인 九州에 約50年前에 創立한 九州帝國大學의 3,208,647円의 切半에 미치지 못하였는가 하면 東京帝國大學 7,193,774円의 約5分の 1밖에 比重을 두지않은 것을 勘案할 때 日帝는 大學運營에 있어서도 日本國內와 많은 差等を 두고 運營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앞에 指摘한 바와같이 大學의 全體予算配定에 많은 差等を 두었으니 1個大學의 附屬圖書館 予算配定에도 많은 差等を 두었을 것임에는 確實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에 執行된 圖書構入費의 規模로 보아도 圖書館全體予算의 配定은 名目上인 것에 不過하였을 것이라 生覺된다.

따라서 圖書館으로서 充分한 予算의 確保는 期待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大學圖書館 本然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지 못하였을 것임은 當然한 것으로 生覺된다.

세째로 同図書館의 藏書構成은 日帝가 同大学 設立 目的에 符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生覺된다.

京城帝國大學은 創立當時(1924)에 法文學部和 醫學部를 두고<sup>3)</sup> 뒤이어서 1938年理工學部를 增設하였다.<sup>4)</sup> 그러나 그 圖書館의 藏書內容은 大体로 法學을 비롯한 人文科學의 圖書가 中樞를 이루어 圖書館의 基幹資料로 活用되었다.

한편 醫學部에는 따로 圖書室이 있었으므로 中央圖書館의 藏書構成에 있어서는 主로 法文學部 各學科 教授 및 學生들의 研究에 必要한 資料를 蒐集할 수 밖에 없었다.

年度別 藏書受入量은 別表 6 과 같다.

〈別表 - 6〉 年度別藏書受入狀況表

年度別	年間藏書增加量	學生數	學生1人當增加冊數	備 考
1926	77,503	309	251	
1927	24,922			
1928	35,068			
1929	24,091			
1930	175,425	571	307	奎章閣圖書
1931	14,379	555	26	128,184冊 포함
1932	16,768			
33~45	未 詳			

- 1) 서울대학교 20年史, p34 参照
- 2) 朝鮮諸學校一覽 昭和6年 p. 484~486.  
朝鮮總督府學務局

그러나 1932年 以後 解放까지의 年度別 藏書增加量에 對한 資料가 어서 밝힐 수는 없으나 解放直前까지의 總藏書數가 552,006冊에<sup>5)</sup> 達

- 3) 京城帝國大學 前掲一覽, 1927 pp19.
- 4) 上掲一覽, 1938, pp32  
大學學部ノ件(昭和13年4月勳會 第251號)
- 5) 上掲書 pp34.

하여 圖書館 設置以後 解放이 될 때까지의 21年間的 年間平均增加冊數는 25,901冊이 된다.

이 때의 學生 1人當 平均增加冊數는 表 6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圖書館 設置 當時인 1926年에는 學生 1人當 增加冊數가 251冊이 되었으나 5年後인 1930年에는 307冊으로 1926年 創設當時보다 0.8%의 增加를 보인다. 이것은 日帝가 特別히 藏書 蒐集에 努力한 結果는 아니었고 韓日會併 當時 우리 나라로부터 収奪하여 갔던 奎章閣圖書 128,184冊을 移管하게<sup>36)</sup>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해인 1931年의 增加冊數는 學生 1人當 26冊으로 前年度 增加冊數 307冊의 11分의 1에도 미치지 못한 實情이었으니 이는 予算을 說明할 때 言及한 바와같이 日帝가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의 圖書 構入費 配定에 인색하였음을 보여주는 證據이다.

別表 7은 이 때 京城帝國大學과 設置學部가 비슷하였던 九州帝國大學 附屬圖書館과의 1926년부터 1932年 사이에 藏書 增加量에 對한 比較이다.

〈別表-7〉

藏書 年間 增加 對比 表

區分 年 度	京 城 帝 國 大 學				九 州 帝 國 大 學				備 考
	年 間 增 加				年 間 增 加				
	藏書量	年 間 增 加			藏書量	年 間 增 加			
	東洋書	西洋書	合 計		東洋書	西洋書	合 計		
1926	77,503	43,729	33,774	77,503	143,004	105,029	105,029	248,033	九州大學 圖書館의 장서량 單位가 로 表示되었음.  奎章閣圖書 128, 184冊 포함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장서량)
1927	102,425	5,690	19,232	24,922	37,204	22,323	37,204		
1928	137,493	24,533	10,535	35,068	208,631	32,462	33,165	65,627	
1929	161,584	18,192	5,899	24,091	250,470	31,691	20,148	41,839	
1930	337,009	167,231	8,194	175,425	289,921	20,378	19,073	39,451	
1931	351,388	4,040	110,339	14,378	327,869	25,366	12,582	37,948	
1932	368,156	8,765	8,003	16,768	366,537	18,268	20,400	38,668	
平均		38,075	10,367	48,442		19,694	17,561	37,255	

資料 : 1) 京城帝國大學報 第65号 p.343~4 66号 p.347. 第68号 p.355~6 第70号 p.369 參照

2) 九州帝國大學一覽 昭和 2年 p.248, 昭和 3年 p.268, 昭和 4年 p.273, 昭和 5年 p.278 昭和 6年 p.282. 昭和 7年 p.279 參照

36) 上掲書 pp836

이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年間 平均增加量에 있어서는 九州 帝國大學의 37,255冊으로 京城帝國大學의 48,422冊보다 0.8%가 낮다.

이러한 事實은 上述한 奎章閣圖書가 包含되어 京城帝國大學의 增加量이 上廻한 것으로 이를 1926년부터 1932年사이의 年度別 增加量에서 1930年分(奎章閣圖書包含分)을 除外하고 比較하면 쉽게 알 수가 있다. 卽, 京城帝國大學의 增加量이 大體的으로 九州帝國大學의 2分の 1에 該當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事實들을 綜合하여보면 日帝가 圖書構入費를 充分히 配定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換言하면 그들이 大學運營에 差等を 두었듯이 圖書館運營에도 亦是 日本國內와 많은 差等を 둔 것이다.

한편 圖書의 增加에 있어서 이를 東·西洋書로 比較하여보면 京成帝國大學 附屬圖書館의 東洋書 平均增加量이 38,075冊으로 西洋書의 10,376冊보다 約 4倍가 많았으며 이와 反對로 九州帝國大學 附屬圖書館의 境遇에 있어서는 東洋書가 19,694冊이고 西洋書가 17,561冊으로 거의 비슷한 比率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現象도 前者의 境遇는 奎章閣圖書가 차지하는 比重이 큰 때문이라고 보겠다. 卽, 1930年度의 奎章閣圖書增加分을 除外하고 比較하면 東洋書의 平均增加量이 16,711冊이고 西洋書가 10,367冊으로서 앞에서 境遇와 같이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에 東洋書 平均增加量이 4倍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0.6%나 높았다.

이러한 事實로 미루어 보면 이 때의 圖書增加量에 奎章閣圖書가 차지하는 比重이 높았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藏書蒐集에 있어서 東洋書에 力點을 두었음을 把握할 수 있다 이는 日帝가 植民地政策樹立 및 植民地內事情研究에 必要한 資料確保에 努力한 結果라 하겠으며 한편 前章에서 言及한 바 있는 圖書館이 屬해 있는 京城帝國大學의 特色을 잘 反映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當時의 資料選定 및 購入狀況을 그 때의 圖書原簿를 參照하여 調査한것이 別表 8~10이다.

이 調査에 있어서 調査對象期間을 해마다 每回 全体圖書購入量을 調査對象으로 하지 않고 便宜上 調査의 範圍를 3段階로 나누어 初期를

37) 京成帝國大學 附屬圖書館 規程 第14條

〈別表-8〉 京城帝大附属図書館圖書購入現況

	1930						1935						1940						平均				
	東洋書			西洋書			東洋書			西洋書			東洋書			西洋書			東洋書		西洋書		
	冊數	比率%	冊	冊數	比率%	冊	冊數	比率%	冊	冊數	比率%	冊	冊數	比率%	冊	冊數	比率%	冊	冊數	比率%	冊	冊數	比率%
一般圖書	1,838	15.4	72	1.1	1,265	14.0	194	3.6	515	4.8	13	0.6	1,206	11.4	93	2.1							
人文哲學宗教	1,203	10.2	792	12.1	712	7.8	272	5.0	804	7.5	178	8.7	906	8.6	414	8.9							
文學、語學	3,003	25.4	624	9.6	1,354	15.0	364	6.7	1,442	13.4	221	10.8	1,933	18.3	403	8.6							
歷史、伝記、地誌	2,444	20.6	398	6.0	1,054	11.6	188	3.5	827	7.7	48	2.3	1,442	13.7	211	4.5							
小計	8,488	71.6	1,886	28.8	4,385	48.4	1,018	18.8	3,588	33.4	460	22.4	5,487	52.0	1,121	24.1							
社會																							
教育、藝術	302	2.6	233	3.6	276	3.1	132	2.4	139	1.3	29	1.4	239	2.3	131	2.8							
法律、政治、行政、國民	1,623	13.7	2,473	38.1	496	5.5	964	17.5	429	4.0	440	21.4	849	8.0	1,292	27.6							
經濟、商業、財政、社會	343	3.0	659	10.1	276	3.1	489	9.0	304	2.8	309	15.0	308	2.9	486	10.4							
小計	2,268	19.3	3,365	51.8	1,048	11.7	1,585	28.9	872	8.1	778	37.8	1,396	13.2	1,909	40.8							
自然																							
理學、醫學	156	1.3	60	0.9	19	0.2	36	0.7	181	1.7	18	0.9	119	1.1	39	0.8							
工業	18	0.2	29	0.4	35	0.4	32	0.6	29	0.3	13	0.6	27	0.3	25	0.5							
產業、農業、軍事	64	0.5	8	0.1	41	0.5	20	0.4	44	0.4	13	0.6	50	0.5	14	0.3							
小計	238	2.0	97	1.4	95	1.1	88	1.7	254	2.4	44	2.1	196	1.9	77	1.6							
其他																							
雜誌	(85卷) 384	3.2	(170卷) 1,177	18.0	596	6.6	(149卷) 2,751	50.6	435	4.0	774	37.7	(85卷) 472	4.5	1,567	33.5							
古文書	463	3.9			2,909	32.2			5,608	52.1			2,993	28.4									
小計	847	7.1	1,177	18.0	3,505	38.8	2,751	50.6	6,043	56.1	774	37.7	3,465	32.9	1,567	33.5							
合計	11,841	100	6,525	100	9,033	100	5,442	100	10,757	100	2,056	100	10,544	100	4,674	100							

資料1)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圖書原簿(東洋書) 1930. 1935. 1940年

2) (西洋書), 1930. 1935. 1940年 参照

〈別表-9〉

		1930		1935		1945		平均	
		冊數	比率	冊數	比率	冊數	比率	冊數	比率
漢書	韓國語	2,038	17.2	4,592	50.8	6,155	57.2	4,262	40.4
	中國語	6,959	58.8	1,416	15.7	1,687	15.7	3,354	31.8
	日語	2,844	24.0	3,025	33.5	2,915	27.1	2,928	27.8
	英語	2,091	32.0	3,008	55.2	843	41.0	1,981	42.8
	獨語	3,784	58.0	2,127	39.1	884	43.0	2,265	48.5
	仏語	638	9.8	307	5.6	322	15.7	422	48.0
	露語	12	0.2			7	0.3	6	9.1
	合計	1,366	100	14,475	100	12,813	100	15,218	100

資料 1)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圖書原簿(東洋書) 1930, 1935, 1940년  
 2) " " (西洋書) 1930, 1935, 1940년參照

넘어선 1930年 그리고 中期로 간주되는 1935年과 後期인 1940年으로 나누어 調査하였다.

이 表에 依하면 主題別에 있어서 東洋書의 境遇 古文書가 28% 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文學, 語學이 18% 歷史 傳記, 地誌가 13%의 順이며 工業圖書가 0.26%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分野別로는 人文系가 52%로서 가장 많았고 社會系가 13% 自然系는 約 2%로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言語別로 나누어 보면 漢書系(韓國語, 中國語)가 全體圖書의 72%이고 日書는 27%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圖書形態別로 살펴보면 單行本이 67%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古文書로 28% 雜誌가 4%로서 가장 적었다. 여기서 注目할만한 事實은 古文書가 차지하는 比重이 全體의 3分の1을 차지하였다는 點이다.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그들이 東洋文化研究上 古文書가 차지하는 位置와 重要性을 奎章閣 圖書 다음으로 認識하고 古文書의 購入에 主力하지 않았는가 生覺이 된다. 그리고 分野別에서 人文社會科學이 65%이고 自然科學은 約 2%란 顯著한 差異를 보이고 있는 事實은 藏書機成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그들이 우리 民族에게 高度의 科學的인 素養을 갖추지 못하도록 견

〈別表-10〉 形態別対比表

	1930						1935						1945						平均					
	東洋書			西洋書			東洋書			西洋書			東洋書			西洋書			東洋書			西洋書		
	冊数	比率%	冊	比率%	冊	比率%	冊数	比率%	冊	比率%	冊数	比率%	冊	比率%	冊数	比率%	冊	比率%	冊数	比率%	冊	比率%		
単行本	10,994	92.9	5,348	82.0	5,528	61.2	2,691	49.5	4,714	43.8	1,282	62.4	7,079	67.1	3,107	66.5								
古文書	463	3.9	-		2,909	32.2			5,608	52.2			2,993	28.4										
雑誌	(384)중 85	3.2	(1,177) 170	18.0	(596)중 87	6.1	(2,751) 149	50.5	(435)중 85	4.0	(774)중 102	37.6	(472)중 85	4.5	중 (15.67) 14.0									
合計	11,841	100	6,525	100	9,033	100	5,442	100	10,757	100	2,056	100	10,544	100	4,674	100								

資料 1) 京城帝国大学附属図書館原簿(東洋書) 1930, 1935, 1940년  
2) " " (西洋書) 1930, 1935, 1940년 参照

〈別表-11〉 京城帝国大学附属図書館閲覧状況

	藏書量	學生數	館内			館外			覽			閱覽人員合計
			閱覽冊數	閱覽人員	1人當閱覽冊數	學生1人當冊數	閱覽比率%	貸出冊數	貸出人員	1人當貸出冊數	學生1人當貸出冊數	
1927	102,425	315	22,994	17,677	1.35	76.17	6,331	1,336	4.74	20.09	21	19,013
28	137,493	469	44,441	32,508	1.36	94.75	14,057	2,631	5.34	29.97	24	35,139
29	161,584	552	40,784	31,300	1.30	73.88	15,991	3,193	5.01	28.96	28	34,497
30	337,009	573	52,306	30,990	1.68	91.28	25,845	3,723	6.94	45.10	33	34,713
31	351,388	534	44,076	34,634	1.27	82.53	34,106	4,676	7.29	63.86	44	39,310
平均		489	41,120	29,423	1.39	83.92	19,222	3,112	5.86	37.60	32	32,534

京城帝国大学學報 第65号 p344 参照



제하러던 政策을 意識的으로 大學圖書館의 圖書購入에 있어서 까지도 反映토록 한 點을 立證하여 주는 좋은 資料가 될 것이다.

또한 言語別 購入에 있어서 漢書系(韓國語 中國語)가 全體量的 3 分の 2란 많은 比重을 차지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 나라는 勿論 廣大한 中國大陸의 侵略政策樹立에 必要한 많은 資料를 確保하기 위한 手段이었다고 말 할수있다.

이러한 事實은 東·西洋書의 購入量을 比較하므로써 指摘할 수 있다. 即 東洋書의 平均購入冊數는 10,544冊으로 西洋書의 4,664冊보다 約 2倍가 더 많았다.

한편 西洋書의 主題別 圖書購入에 있어서는 法律,政治 및 植民地關係圖書가 28%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經濟, 商業, 財政, 社會學이 10% 文學, 言語學과 哲學, 宗教가 各各 8%의 順이고 가장 적은 것은 0.1%인 軍事關係圖書이었다.

藏書構成에 있어서 指摘할만한 事實은 東洋書의 境遇에는 史料 및 文學, 言語學 關係圖書가 32%로서 法律關係圖書의 8%보다는 4倍나 많았다는 點이다. 그리고 이를 史料, 文學, 言語別로 따로 区分 하여도 法律關係圖書는 2分の 1밖에 되지 않았으나 西洋書의 境遇에는 이와 正反對의 現象을 보이고 있다. 即 法律關係圖書가 28%로서 史料 및 文學, 言語關係圖書의 13%보다 約 1.5倍나 더 많았다. 이를 다시 史料 및 文學, 言語別로 各各 区分하여 比較하면 史料의 境遇 5%로서 法律關係圖書의 5分の 1에 미치지 못하였고 文學, 言語의 境遇에 9%로서 法律關係圖書의 3分の 1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같이 東洋書에 있어서는 文學部의 圖書가 法學部의 圖書보다는 越等히 많은 比重을 차지하였고 西洋書의 境遇는 法學部의 圖書가 文學部의 圖書보다는 많아 正反對의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前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圖書館의 設置母體인 京城帝國大學의 性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單行本 購入에 있어서 東洋書의 年平均 購入冊數가 7,079冊으로 西洋書의 3,107冊보다는 2倍가 많았다. 이는 藏書構成에 있어서 東洋書에 置重하였다는 事實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事實을 通하여 이때의 藏書蒐集方向과 藏書構成을 다음과 같이 指摘할 수 있겠다. 即 이들이 蒐集한 圖書의 內容은 東洋書에

있어서는 東洋文化研究에 必要한 資料가 主가 되었으며 西洋書의 境遇에는 植民地政策과 施政方針樹立에 必要한 資料를 確保하는데 力點을 두어 편협적인 圖書選定 및 購入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섯째 閱覽奉仕에 있어서는 大部分의 圖書館資料를 書庫에 閉架하여 주로 貸出을 通하여 利用시켰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奉仕內容과는 다를 바 없다. 閱覽時間에 있어서는 오늘날 大部分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과 같이 職員의 日常勤務時間外에도 延長 開館하고 있다. 그리고 季節에 따라 伸縮性있게 調整하여 大体로 午後 9時까지로 하고 있으나 7月 1일부터 8月 31일까지는 正午까지로 短縮 開館하고 있다. 이렇게 2個月間씩 夏季放学期를 通하여 職員들의 心身을 풀어주고 다음 学期를 對備하기 위한 이른바 「余暇善用」으로 오늘날 많은 大學圖書館(國立大學校除外)이 活用하고 있는 制度이다.

한편 年間 開館日數는 開設當該年인 1926年의 171日을 除外하고는 年間 288~307日로서 이 圖書館規程의 第15條에<sup>38)</sup> 明示된 休館日을 除外하고는 모두 開館하고 있다.

또한 貸出業務에 있어서는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規程에 館內 館外貸出이 用語上 다르게 表現되어 館內閱覽, 館外借受로 明記되어 있다.<sup>39)</sup>

當時 一般圖書의 閱覽範圍가 教職員, 大學院生, 學部學生은 勿論, 卒業生, 予科學生까지도 包含되고 있으나 館外借受의 境遇에 있어서는 많은 制限을 두고 있다. 即 講師以上の 教職員에 對하여는 別로 規制를 얹고 있으나 其他 職員이나 大學院生에 對해서는 많은 制約을 두어 所定의 節次를 밟아야만 館外貸出이 可能하였으며 學部學生의 境遇에는 전혀 館外借受가 不可能하였던 點이 오늘날 우리나라 大學圖書館 보다 多少 폐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圖書의 粉失을 防止하기 위한 最善策으로 이러한 까다로운 規

---

38) 上揭規程 第15條

39) 上揭規程

第2章 館內閱覽

第3章 館外借受

定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

別表11은 이 때의 館內外閱覽狀況을 年度別로 對比한 것으로서 이에 依하면 館外貸出 年平均冊數는 19,222冊인데 比하여 館內閱覽冊數는 41,120冊으로서 館外貸出이 館內閱覽冊數의 約 2分の 1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比率로 나타내면 館外貸出이 32%로서 館內閱覽 68%보다 折半이나 낮았다. 그리고 閱覽人員에 있어서도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館外貸出人員이 全体閱覽 年平均人員 32,534名の 10%인 3,112名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圖書館閱覽奉仕에 있어서 館外貸出은 奉仕의 基本的인 業務임에도 不拘하고 當時의 館外貸出은 매우 不振하였다.

昨今の 近代圖書館의 閱覽奉仕에 있어서도 圖書의 粉失 또는 人員의 不足을 理由로 내세워 館外貸出을 忌避 또는 抑制하고 있는 現實을 勘案하여 볼 때 그때의 理由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었는가 生覺된다.

이와 같은 事實로 미루어 當時의 이 圖書館奉仕의 大宗은 館內閱覽이라 할수 있었으며 한편 圖書의 館外貸出은 教職員들에게만 獨點 利用시킴으로서 圖書館奉仕의 基本業務인 館外貸出奉仕를 소홀히 하였다 는 點에서 前近代의 圖書館奉仕이었다고만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事實은 오늘날의 大學圖書館奉仕와는 相當한 對照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V. 結 論

日帝下의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은 그들의 教育理念 및 政策具顯을 돕는 附屬機關으로 設置되었으나 祖國光復과 더불어 現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의 根幹이 되어 發展 되었으며 우리 나라 大學圖書館 發展의 素地가 되었음을 否認하지 못 할것이다.

이와같은 日帝下의 唯一한 大學圖書館인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의 實態를 分析한 後 얻어진 結論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日帝下의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은 日帝가 우리나라의 植民地 教育政策의 遂行을 위함이고 더 나가서는 東南亞全域을 支配하는데 必要한 最高水準의 教育研究活動의 援助機關으로서의 口實을 하려는데 그 設置目的이 있었다.

2, 組織, 職員 予算에 있어서 現代大學圖書館과 같은 水準規模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고 다만 최소한의 基本的인 機能을 遂行하는데 머물렀다.

3, 藏書의 構成을 設置 学部 中心의 圖書에 置重하여 이루어 졌고 反面에 科學技術系 圖書는 大體로 貧弱하였다.

4, 圖書 購入內容과 蒐集方向은 主로 日帝의 對韓植民地政策 및 施政方針樹立에 必要한 資料蒐集의 範圍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5, 同圖書館이 當時 우리 나라 正規大學에 設置되었던 大學圖書館의 始作이었음을 事實이나 우리 나라 大學圖書館의 發展에 別달리 寄與한 點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다만, 現 서울大學校 圖書館의 藏書 및 圖書館施設(大學校綜合化以前)로서 이루어졌다는 點 뿐이다.

6, 이러한 많은 制約속에 이 圖書館은 우리民族에게는 本來의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다만 所屬된 大學의 形式機關으로서 存續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 参 考 文 献

### 1. 単行本

- 姜東嶺：日帝의 韓國侵略史 서울 한길사 1980.  
金鍾喆：韓國高等教育研究 서울 培英社 1979  
孫仁鉄：韓國近代教育史 서울 延世大学校出版部 1975  
梁大淵：成均館創立考 成均館大学校論文集 11 1959. pp23~30  
岩猿敏生：アメリカの 大学図書館における Academie status の 問題 大  
学図書館研究 I 1972. pp 3~12  
岩猿敏生：日本図書館学講座 IV；大学図書館 東京 雄山閣出版料式令社 1976.  
李萬珪：朝鮮教育史 上下 서울 乙酉文化社 1949.  
李錫鍾：韓國教育十年史 서울 豊文社 1960.  
李春熙：'尊經閣考' 大東文化研究 서울 成均館大学校 大東文化研究院 1975  
pp153~172  
吳天錫：韓國新教育史 서울 現代教育双書出版社 1964  
韓國教育研究 "新教育別府導入과 教育觀變遷에 關한 研究" I 서울 韓國精神  
文化研究院 1980.  
高麗大学校 70年誌(1905~1975) 서울 高麗大学校 1975.  
成均館大学校史：서울 成均館大学校 1978  
崇田大学校80年史：서울 崇田大学校 1979  
延世大学校史：서울 延世大学校 1971  
徐巨正撰 四佳文集 木板本(肅宗31年) 卷 I J28b 成均館 尊經閣記  
京城帝國大学創立 50周年記念誌：碧遙かに(東京, 京城帝國大学同窓会 1974.  
pp 3 -48.  
Martin, Louis E. The Libraries of seoul national univesity;  
A Statement on manage ment. Washington D. C. 1974.

### 2. 定期刊行物

- 田中 敬 "図書館員の 資格に 就て" 図書館雑誌 LXXⅢ 1925. 11. pp10  
阿部 洋 "日本統治下の 高等教育" 思想 565, 1971. 7. pp56. 77.  
平井三男 "京城帝日大学の 規模組織과 그 特色" 朝鮮(朝鮮文) e II 1926 pp  
35~37  
第4次 帝國大学 附屬図書館協議会 図書館雑誌 LXXⅢ 1925. 11. pp 10  
ACRL, Committee on standards "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College and Reserch Librories, XX 1959. 7. pp273~280  
A.L.A. Board on personnel administration, Classification and pay  
plans for Libraries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Vol. Ⅲ. 2nd ed Chicage, A.L.A. 1947, pp24  
Mcneal, archie L. "Financial problems of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and Reserch Libraries XV 1954. 10. pp40 -410.

3. 其他資料

日本帝國文部省年報 LV, LIX, LXIII, 東京 文部大臣官傍文書課 1931. pp59  
1936 pp81. 1939. pp73

京城帝國大学一覽 京城帝國大学 1925~1939

京城帝國大学圖書原簿 1930, 1935, 1940

京城帝國大学事務官, 京城帝國大学司書官及 司書特別任用令 (大正15年4月1日,  
勅令53號)

九州帝國大学一覽 九州 九州帝國大学 1925~1939

台北帝國大学一覽 台北, 台北帝國大学 1928~1939

京城帝國大学令報 京城 京城帝國大学 1927~1940

## STUDYON THE KOREAN UNIVERSITY LIBRARIES FROM 1924-1945.

Yoon, Seung Hyeon

“Jonkyongkak” which King, Sungjong of Yi dynasty established within Sungkyunkwan in 1475 is regarded as the first university library in Korea. On the basis of modern librarianship,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fact that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is really the first university library in Korea.

In this thesis, an attempt to study the Korean universith libraries under the period of Japanese control is provided.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is the key institution in this study. This study will focus to review the following facts: 1)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2) the organization and staffing pattern, and budget of this library; 3) the acquisition policy and basic collection development plan of this library; 4) the library and other services of this library including readers services; 5)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rivate college libraries; and 6) the impact of this library on the pres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followings are the outlined conclusions:

1. Japanese Government had established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in order to perform the colonial education policy of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t was one of the import supporting agencies for the research activities which were necessary for Japan to govern the Southeast Asia including Korean Peninsula
2. The organization and staffing size and pattern of this library are much below to those of modern university libraries. They are somewhat below to the level which is necessary to perform the minimum basic library functions.
3. The priorities of book collection of this library are 1)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specially, materials on Law are much emphasized; 2) pure sciences and 3) technologies and agriculture. Therefore, the quantity of the materials o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agriculture is very small.

4. The acquisition policies of this library are deeply influe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s colonial policy of Korean peninsula and her aggressive policy of Chinese Continent.
5. The major contribution of this library to the pres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s the transfer of 550,000 volumes of books and library building, but this building is now removed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pus.
6. The staffing pattern of this library was, however, much ahead of that times. Especially, the facts that professional librarians were eligible to be appointed as the director of this library, and they had the faculty membership including faculty rank should be highly appreciated.